

제 118 호

사순 제 3 주일

1975. 3. 2.

숲 정 이

발행인	김 종 택
인쇄인	범 석 규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601번지 가톨릭센터 내 (전화 ③3498)

□ 강 론 □

하느님의 선물은

김 용 태 신부

만일 남이 가지지 않은 귀한 물건을 가졌을 때, 또는 어떤 훌륭한 일을 했을 때, 모든 사람은 기쁨과 자랑을 가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하며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일 것이다. 그 귀한것은 무엇일까?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장면이다. 적대시하는 그 여인은 그 위대하신 분을 알아보고 신뢰하였다. 바로 그 여인은 하느님의 선물인 믿음을 받았다. 하느님께 대한 믿음은 인간 구원의 시작이며 하느님의 일치의 기초요, 근원이다. 즉 믿음은 하느님의 선물이며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고 또한 자기 자신을 하느님께 온전히 봉헌할 수 있는 것이다. 믿음은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의 의지와 이성과 지식으로 받아들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과 실천으로써 응답할 때 우리의 믿음은 성숙하고 산 믿음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보자. 서로 믿지 못하여 정담을 나누기를 꺼려하는 불신종교가 웬말이나! 지난 2월 12일 전 후 사회분위기는 삭막하기만 했다. 신자들간에 서로의 눈치를 보며 서로 꺼려하는 것을 보았다. 신부가 공소 방문하는 것을 만류하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부조리한 제도나 체제에서 나온 산물이 아닐까.

신앙을 가진 사람은 사목현장이 말하듯이 현대의 모든 사람이 직면하고 있는 사건과 요구와 열원을 체험하면서 하느님의 현존과 그 계획의 참된 표지는 과연 무엇인가를 그속에서 알아내려고 노력하는것일 때, 신앙이야말로 모든것을 새로운 빛으로 밝혀주고 사람을 부르신 하느님의 의향을 완전히 드러내주는 것이다.

이와같이 신앙은 아무런 노력없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안에 하느님이 당신을 계시할때 우리는 그것을 이성으로써 받아들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하느님의 계시도 우리에게 한낱 가지없는것밖에는 되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노력없이 신앙을 가질 수 없으며 또한 신앙은 성숙될 수 없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전 인격으로써 겸손되어 자기를 굴복시키고, 자신으로 부터 탈피를 성취할 때, 신앙은 산 신앙이 되는것이다. 따라서 교만과 자만에 대한 집착, 세상의 헛된일들에 대한 지나친 애착과 자신을 폐쇄하는 협소한 자아 만족등은 신앙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일 것이다.

그러기에 오늘날 교회 내의부에서 부딪치는 어려움은 신앙하는 이들에게 커다란 어려움을 주는 듯 하다. 고위층에 모모 자리에 있는 신자들은 당분간 교회에 나오지 못해도 마음만은 참여하고 있으니 이해해 달라는 말까지도 나온다. 어찌자고 이런 꼴이 나왔는가. 너나 할것 없이 다 모두의 책임이요, 참된 신앙의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요청일꺼다. 적대시하는 사마리아 여인이었지마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차리고 얻은 선물을 생각할때, 우리도 고귀한 선물을 받고 또 이웃에게 선물을 보여주고 사랑 하고 선물을 받도록 합시다.

(우주 본당 신부)

* 이 주일의 미사 *

(1) 개회식

□입당송 내 발을 울무에서 뽑아 주시기에, 언제나 나의 눈은 주를 향하여 있나이다. 나를 굶어보시고 불쌍히 여기소서. 외롭고 가난한 이 몸이오이다.

(2) 말씀의 전례

□ 제1독서 (출애굽기 17:3-7)

우리에게 마실물을 주소서

□ 증계송 ○주님의 목소리를 오늘 듣게 되거든 "너희 마음을 무디게 가지지 말라" 어서 와 하느님께 노래 부르세. 구원의 바위 앞에 목청 들우세. 송가를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세. 노래 가락 드높이 주님을 부르세. ○

□ 제2독서 (로마 5:1-2, 5-8 성서 P,346)

성령께서 우리 마음 속에 하느님의 사랑을 부어 넣어 주셨다.

□ 복을 전 노래 주님, 참으로 당신은 구세주이시니, 나에게 물을 주소서. 목마르지 않으리이다.

□ 복을 (요한 4:5-42, 성서 P,299)

샘물같이 솟아오르는 물로 영원히 살게 되리라.

□ 신자들의 기도

1. 죄없이 수난당하시며 생명을 비치시면서도 죄인같이 독목하신 주여, 사육을 채우면서도 자기 낮만 드러내려 하는 우리들이오니 이 수난기에 우리의 가면을 벗고 진정 꿇우치는 심자가야말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길임을 모범으로 보여 주도록 도와주소서 ○주여, 우리의...

2. 서로 갈라져 미워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주여, 우리들이 하나로 뭉쳐 당신이 주신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지도자 들에게는 총명한 판단력과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 국민도 믿고 신임하며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3. 주여, 당신의 자녀로써 이 세상을 떠난 우리 형제들에게도 당신의 영광에 길이 편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

○청하기도 전에 이미 모든것을 다 아시는 아버지 하느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바라고 청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노력과 정성이 많이 부족하나 당신의 크나큰 자비로 들어허락하여 주소서. 당신의 아들 우리주 예수... 비나이다. ○아멘

(3) 성찬의 전례 □"봉헌 □성찬식"

□ 영성체송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이 물이 그 사람 속에서 샘물같이 솟아 올라 영원히 살게 하리라.

* 숲 정 이 산책 *



축! 30명의 구르실리스타 탄생

십자가의 길 (2)



- 제 6 처 성녀 베로니카, 예수의 얼굴을 씻어드림을 묵상합니다.
- 제 7 처 예수, 두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 제 8 처 예수, 예루살렘의 부인들을 위로하심을 묵상합니다.
- 제 9 처 예수, 세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 제 10 처 예수, 옷을 벗기우고 초와 쓸개마음을 묵상합니다.

한 상 갑

6. 예수의 얼굴을 닦아드린 성녀 베로니카
주여, 당신의 얼굴이 우리들의 죄로 더러워 치셨읍니다. 먼지와 땀, 재적으로 갈라진 상처에서 흐르는 파와 더러운 침, 이 모두는 제 잘못으로 인한 것입니다. 주여 정말로 용서해주소서.

더욱 용서를 받아야 할 일은 저의 비겁함입니다. 당시에도 로마 병사들이 무서워 아무도 당신을 도와드릴 엄두도 못냈었습니다. 심지어는 당신을 그렇게도 따라다니던 당신의 제자들조차 해내지 못한 일을 연약한 여인, 당신의 딸 베로니카가 해냈읍니다.

역시 힘(力)이 중요한 것이 아니더군요. 많이 아는 것(知)도 문제가 아니더군요. 돈(金)도 문제가 아니고, 아름다움(美)이나 명예도 문제가 아니더군요.

오직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과 당신을 따르는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머리로 사랑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심장으로 말입니다.

내 마음을 바꿔주소서. 지성이나 겸손함을 내세워 꼬리를 사라는 비겁함을 버리고 뜨겁게 가슴으로 살 수 있게 말입니다.

7. 두번째 넘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주여, 당신은 또 넘어지셨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억지로라도 당신을 거들던 시몬도 달아나 버렸읍니다. 넘어지시며 당신은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슬한 무리들이 당신을 에워싸고 따르고 있었지만 역시 당신은 고독을 느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구경하는 무리, 군중 속에서의 당신의 고독을 저는 새삼스럽게 느껴 봅니다.

요사이 당신의 뜻대로 살아 보겠다고 십자가를 지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크리스찬이면서도 그분들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구경꾼처럼 비겁하게 보이지만, 그분들과 마음으로 일치합니다. 주여, 당신이 골고타를 오르셨을때도 많은 이들이 뿔전에서 자신의 비겁함을 울면서 따랐을 겁니다.

항구심을 주세요. 당신을 따르다가 도중하차하지 않을 항구심을 말입니다.

8.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여, 제논의 들보는 못보고 남의 눈의 티끌만 보던 예루살렘의 부인들처럼 "네탓이요"를 좋아하는 저를 용서해 주소서. 저는 "네탓이요"와 "네탓이요"를 편리한 대로 외어댁니다. 두려운 생각이 앞서서 당신에게 용서를 빌 때는 "네탓이요"입니다. 그러나 사회부조리나 부정에 대해서는 "네탓이요" 하기가 일쑤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면 "네탓이요" 해댁니다. 저 자신이 죄인이고, 저때문에 남들도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당신의 십자가까지도 말입니다. 이 어리석은 당신의 양을 용서주소서.

제논의 들보를 볼 줄 아는 마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9. 세번째 넘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주여, 이제는 정말로 기운이 쇠하셨군요. 세번째이니 넘어지셨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무거움보다는 정신적인 부담이 더 크게 당신을 짓누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신은 온 인류의 죄로 무거운 십자가때문에 넘어지셨지만 저는 조그마한 일때문에 가끔 넘어집니다. 때에 따라서는 모든 것이 귀찮아지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쉽게 일어설기도 합니다. 그러나 곧 또 넘어집니다. 세상만사가 칠전팔기(七顛八起)뒤에 기쁨이 있다고 알고 있으면서도, 어떤 때는 넘어져서는 어쩔줄을 모르고 잠을 자기도 합니다.

용기를 주세요. 넘어졌지만 또 일어나서 당신이 주시는 위로와 평화를 맛볼 수 있게 말입니다.

10. 옷을 벗기우고 초와 쓸개를 마신 예수 그리스도

주여, 당신은 이제 모든 것을 빼앗기셨습니다. 몸에 걸친 옷까지 말입니다.

가끔 듣는 말로는 옷을 벗기우고 알몸으로 고문을 받았다든 소리가 있습니다. 알몸으로 난 인간이기에 알몸으로 있으면 홀가분하기는 합니다만 부끄러움조. 하지만 차라리 다 벗고 싶습니다. 저를 결박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훌훌 벗어버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제게 생명을 주실 때처럼 말입니다.

벗겨 주세요. 죄와 죽음으로 이끄는 모든것들을 벗게 하시어 어린이처럼 당신의 기쁨을 맛보게 말입니다.

파이렉스·실크벽지
집칠·도장청부
대흥
지물 페인트상사
전주 동부시장동(25986)

남학생 교복(에리트)
모자, 모표, 학년표, 카라
송약국
↓남문
부활상회
● 전주시 전동, 매곡교차거리
주원배(실베들)아침

※ 신자들의 건강 센터 ※
※ 신자들의 집 ※
성심당 한약방
대지사진관(2층)
이 상 범(필노리아노)
육교길 구 북부배차장 옆
전화 0 6544

신앙의 어린묘목

671번 신 관 용

인류사회는 날로 진보되고 그 과학 문명은 고도로 발전되어 지구 밖의 우주여행을 하는 현시대에 우리 인간과 모든 생명은 오묘한 자연의 이치 속에서 일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질 수 밖에 없는 허무하고 무가치한 존재임을 누구나 생각하고 있을 것이읍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느님으로부터 주어진 사명을 갖고 있어 보다 아름답고 행복된 삶을 회구하면서 각계 각층에서는 온갖 노력과 정성을 쏟아 사회를 한층 더 발전시키고 불의를 제거하며 정의와 진리를 숭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이제 깨닫게 된 것이읍니다.

영겁의 유구한 인류 역사 속에서, 나도 이 시대에 이 나라 국민의 일원으로 태어난 귀한 인간의 몸이었으나, 나는 하느님을 부인하고 망상과 난폭한 생활 속에서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될 가장 무서운 살인죄를 범한 몸이읍니다. 그 죄악의 댓가로 무기형의 선고를 받고 그동안 인간의 귀중한 자유와 의지마저 빼앗긴 영어의 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의 길진과 방향을 찾지 못하고 매일같이 뜻없이 세월을 허송해버린 것이읍니다. 그동안 나는 모순과 부조리의 세상만을 원망하면서 교도소의 따듯하고 친절환 교정 교화의 방침에 따라 많은 종교강의와 교양 강의를 들었으나 한번도 감화를 받거나 잘못을 뉘우칠줄 모르고 오히려 욕설과 비웃음으로 흘려버린 못된 생활만을 해왔읍니다.

이렇게 살아온 나는 작년 1월 어느날 서울에 있는 가톨릭 신자 순회정(글라라)로부터 친절환과 따듯하게 복음을 전해주는 서신을 받고, 내 현실의 인생과 사후의 영생을 생각하면서 지난날의 어리석고 잘못된 행위에 대해 회오의 눈물을 흘림과 동시에 하느님의 넓고 크고 깊은 뜻을 생각하게 되었읍니다. 글라라 자매는 나에게 매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보내주시고 친히 멀리서 이곳까지 면회를 와 주셨으며, 나의 고향집에까지 찾아가 나의 어머님을 상면하여 여러모로 따듯한 위로를 해주신 것이읍니다. 글라라 자매는 온 세인이 저주하고 나 자신까지도 포기해버린 나를 받아들이고, 내 마음 속 황무지 땅을 손수 개척하여 그 새로운 밭에다 신앙의 씨앗을 심어 항상 거름을 주고 물을 주셨읍니다. 그 신앙의 씨앗은 그분의 고마운 지성과 사랑으로 싹이 돋고 잎이 피어 어느덧 1년이 훌렀읍니다. 글라라 자매는 나의 연약한 묘목 옆에 자라나는 잡초를 뽑아주고 모진 바람을 막아주며 나쁜 벌레를 잡아주면서 건전한 성장을 기구하고, 아름답고 귀한 꽃과 열매를 갖는 큰 신앙의 나무가 되어주시기를 바라고 온갖 정성을 쏟아 사랑하고 아껴주었읍니다.

나는 지금 글라라 자매의 정성어린 도움의 결과로 내 마음 안에 아름다운 소망을 잔지하고 영원한 생명길을 찾는 성경공부에 힘쓰면서, 보내준 책과 명동주보를 보면서 매일같이 하느님께 찬송과 기도를 바치고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 속에서 하느님의 넓고 크고 깊으신 뜻을 차츰 깨닫게 되었고 어리석었던 지난날의 내 인생을 몇번이나 뉘우치고 반성했는지 모릅니다. 이곳 교도소에서든 차츰 신자들이 늘어나고 다른 어떤 종교에 뒤지지 않게 신부님께서 매주 나오셔서 힘쓰고 계십니다. 이제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만 가톨릭 신앙을 가르치는 영원한 양식의 부족으로 저희는 항상 애로와 아쉬움을 금치 못합니다. 내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된 댓가지 하느님의 인과법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보았읍니다.

첫째 나는 하느님의 계명과 뜻을 어졌기 때문에 지금의 불행한 영어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둘째** 누구나 자기가 착실히 쌓아올린 공덕이 크면 큰대로 그 결과의 댓가가 아름답고 가치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셋째** 봄에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고 그 성장을 잘 가꾸어야만 가을에 좋은 수확을 얻는다는 평범한 진리가 인간 생활 각 부분에 적용되는 하느님의 뜻임을 알게 되었으며, **넷째** 이 세상에서 하느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은 후세 영생에 있어 중차대한 문제임을 알게 되었읍니다.

이제부터는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닥치더라도 하느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일편단심을 꺾지 않고서 진실한 신앙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나의 무거운 형벌의 기간 속에서도 결코 절망이나 자포자기의 심정을 갖지 않을 것이며, 소망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며, 당소의 목공 작업의 기술을 배우고 익혀 건전한 제품을 만들어 사회에 내보낼 것을 항상 결심합니다. 내 나이 37세로 남은 생애를 이곳에서 마친다 하더라도 조금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하느님 말씀으로 기쁘게 살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저 천국을 지향하는 진실한 가톨릭 신자의 품위를 지켜 많은 교우들과 함께 나의 심신을 모두 하느님께 바치겠습니다.

(전주시 평화동 3가 99)

요십이 (84) 김병오



□신간안내□
 구약성서 이야기
 마리아 정네르사 박홍근 역
 신약성서 이야기
 마리아 정네르사 저 박홍근 역
 각 1200원

◎창인동 성당 사무장
 공개 채용 광고◎
 아래의 같이 사무장을 구하오니 많은 응모 바람
 1. 자격 : 천주교 신자로서 25세 이상 45세 미만의 남자
 2. 2년이상 행정 사무에 경험이 있는 자를 환영함
 3. 제출 서류 :
 ①자필 이력서
 ②영세 증명서
 ③본당신부 추천서 각 1통
 4. 접수 마감 및 면접 일시
 1975년 3월 10일 오전 10시
 5. 서류 접수 및 면접 장소
 이리 창인동 천주교회 사제관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 감사 합 니 다 *

존경하는 주교님과 경애하는 신부님, 수도자, 교형자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육고를 치루고 있는 동안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열려해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잠시나마 여러분에게 실려를 끼쳐드린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출갈후 여러분을 일일이 찾아 뵈우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심정은 간절 하오나 신병으로 인하여 얼마간은 치료를 받아야 할 처지이기에 도리는 아닌줄 알면서 지면을 통하여 우선 인사를 드리오니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회복 되는대로 여러분을 찾아 뵈우기로 하고 우선 인사에 대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오며 기도 드립니다.
1975년 2월 천주교 원주교구 주교 지 확 순 드림

- 1. J.O.C 훈련회 (3월8일 17시-3월 9일) 광주관구(청주, 대전, 전주, 광주교구) 단위 훈련회를 가톨릭 센터 강당에서 전국본부 주관으로 실시합니다. 선배투사, 관계자 제위의 협조를 요망합니다.
- 2. 중·고등 학생 연합 정기총회: 3월 2일 연합 임원들의 빠짐없는 참석 바람.
- 3. 3월은 노동자의 주보인 성 요셉 성월입니다. 요셉 성인께 많은 기도드립니다.



(중앙) 전화 2651 2874 주임 신부 이대권, 보좌 신부 박영진, 사도 회장 김종진

(북자) 전화 5238 주임 신부 오기순, 사도 회장 조성호

- 1. 사도회 월례회: 공식 미사 후
- 2. 성심 부녀회: 3월 7일 어머니 미사 후
- 3. 사슴 양장점 (제신청안) 김형택 (바오로) 씨께서 봉헌 대 (41,000원) 기증, 감사 기도 드립니다.
- 4. 본당 교우의 숙원이던 전자 울겐 615,000원 구입, 성의껏 현금 바랍니다.
- 5. 신용 조합 직원 모집: 중앙 신용조합 회계원 (남자) 약간명 모집. 자세한것은 중앙 신용조합에 문의바람.

- 1. 사도회 월례회: 공식 미사 후
 - 2. 성우회: 다음주 공식 미사 후
- 지난주 성미 2말 2되 누계 363말

(노송동) 전화 7032 주임 신부 함승천, 사도 회장 조해형

(서학동) 전화 2276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이거영

- 1. 사도회 월례회: 공식 미사 후
- 2. 신용조합 월례회: 다음주
- 3. 학생회 정기 총회: 공식 미사 후
- 4. 성당 신축 헌금에 감사드립니다. 중노 2가 송바울라: 3,000원, 인후 1가 김비리시다: 1,000원 성심여고 1의8 그레고리오셀: 4,000원 주계: 8,000원 누계 1,894,712원 신축 성미: 주계 6되 누계: 244말 6되

- 1. 사도회 월례회: 저녁 7시 30분 미사 후
- 2. 이 주간의 공소 방문: (3일)내 어두리 (4일)의 어두리, 색장리 (5일)신리 (7일)의암리, 마치리 (24일)마음리
- 3. 이 주간에는 평일미사 없음
- 4. 학생회 정기총회: 공식 미사 후

(덕진) 전화 8082 주임 신부 박종근, 사도 회장 김종환

(전동) 전화 3222 주임 신부 김환철, 사도 회장 이힘재

- 1. 사도회 임원 개편: <재정부장> 김용식 <차장> 임병순 <신교부장> 김은식 <차장> 차금석 <교육부장> 유제상 <차장> 이희준 <사회부장> 김용환 <차장> 김인철 <총무부> 박요문
- 2. 사도회 월례회: 공식 미사 후
- 3. 아동 교리 시간: 주일 오후 3시
- 4. 봄 판공 성사 일시 (본당) 3월 6일 오후 7시-9시 (성사), 8시 (미사)
- 5. 신용조합 임원회: 3월 5일, 월례회: 다음주

- 1. 사도회: 오늘 저녁 미사 후
- 2. 유아 세례: 오늘 10시 미사 후
- 3. 유치원 원아 모집: 원서 마감은 3월 3일까지
- 4. 전동 성당 61주년 기념 추진 위원회
 - 3. 3일 오후 8시, 가톨릭센터
- 5. 첫 열성체: 3월 6일 매일 오후 4시부터 시작
- 6. 신용조합 업무 감사실시 공고 (3. 8-10일 10-15시) 조합원은 통장 지참하에 감사확인

금주의 숲정이 은인께 감사드립니다
박 토마(동수), 화십양품점 (조흥은행 사거리)
(속너북 전문)

* 각 본당의 금주간 소식과 지난주일 봉헌금 *

지구	본당	소식	봉헌금	지구	본당	소식	봉헌금
제 1 지구	고 김부선 정	창제 안인업	원아 모집	제 3 지구	창인동 황	사도회 월례회	26,176원
		축제 경기총회	축제 가톨릭 청년 연합회 발족			사순절을 뜻있게 보냈시다	
제 2 지구	대 아월중	판공 성사 일정	2,180원	제 4 지구	중 노동서전	사도회 전자울겐 구입	50,612원
		사도회 월례회	30,070원			사도회 임원 개편	22,387원
제 3 지구	고 산여주현	사도회 월례회	5,291원	제 5 지구	남부장진순환	사도회 월례회	9,535원
		공소 회장단 회의	2,910원			사도회 월례회	14,610원
		사도회 월례회	18,920원			사도회 월례회	10,295원
		사도회 월례회	12,540원			사도회 월례회	42,810원
		사도회 월례회	3,675원			레지오 마리아 우리아 회	10,705원
		사도회 월례회	10,245원			공동체 묵상회 많은 참가 바람	4,965원
		공소 회장단 회의	2,710원			청년회 월례회	3,520원
		사도회 월례회	30,637원			사순절을 뜻있게 보냈시다	
						사순절을 뜻있게 보냈시다	
						사도회 월례회	12,780원